현불 논단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교수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에
자기 삶의 중심 가치 둬야

법회시 삼귀의 · 사홍서원은
부처님 닮아가는 다짐이자
불자의 삶 확인하는 의식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 속
원력 추구하는 노력 절실
편리함보다 가치 추구해야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그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함에 기인한다. 삶의 주체로서 우리 각자가 삶의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 스스로를 불자(佛子)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불자(佛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중심 가치를 결정하는 이들을 말한다. '불자'라고 스스로 호칭하고 '불자'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이라면, 자기 삶의 중심 가치를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법회의식은 불자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명하게 드러낸다. 법회의 첫머리에 두어지는 삼귀의(三歸依)와 법회의 마지막에 두어지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이 그것이다. 우리는 삼귀의를 통해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와 중심 가치를 받아 지니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며, 사홍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삶에 동참하는 것이 불자임을 법회의식을 통해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원력에 기반한 삶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자부하기에 스스로를 '불자' 곧 '붓다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불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서 오직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는 부처님의 선언적 가르침이다. 생명 있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며, 그렇기에 그러한 존재의 '당연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원력에 기반한 삶이 불자의 기본자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삶의 중심 가치는 욕망의 충족이다. 아니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본을 증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의 가치는 노동력으로 환산된다. 그 노동력을 좀더 큰 자본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공존과 공생보다는 경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을 악다구니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단순히 사회시스템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던 경쟁과 자본 가치 중심의 삶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 불교는 지난 2500여 년간 일체의 생명있는 것들이 저마다의 가치에 따라 차별없는 고귀함을 갖추고 있다는 생명평등의 정신과, 그 고귀한 생명은 저마다 마땅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구세주의(救世主義)적 가치관을 추구해왔다. 이것이 불교의 역사 2500여 년간 불자들이 멈추지 않고 추구해왔던 뉴노멀(New Normal)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불교의 역사는 깨달음과 깨달음에 기반한 삶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할 것이다. 깨달음은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생명있는 것의 당위적인 행복을 드러내는 것이다. 불자는 그러한 세계와 가치에 주저함 없이 동참하는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편리함을 발견하고 현실적인 이득을 발견하면, 손쉽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외면하곤 한다. 물어보자, 저나 여러분이나 '불자답게' 살고 '불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편리함과 사사로운 이익에 골몰해서 불자로서의 삶을 너무 안이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일상설법으로 佛法 전해야

〈육방예경〉은 〈선생자경〉이라고도 부르며, 초기불교 경전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소년 선생(善生)이 온 몸이 젖은 채로 동서남북과 상하의 여섯 방위를 향해 절하는 것을 보고, 왜 절을 하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선생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서남북과 하늘, 땅을 향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의미를 두지 않고 절하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음을 가르치며,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 북쪽은 친구, 땅 아래는 고용인과 하인, 하늘은 승려를 상징하므로, 절을 할 때는 그들을 생각하며 매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수많은 공덕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다.

〈육방예경〉은 부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확대 성장하는 인간관계를 여섯 방향의 상징을 들어 설명하며, 수식적 윤리가 아니라 상호 수평적 생활규범을 제시해 주고 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브라흐만)에 대한 예배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경이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예의로서 대하고 믿고 집안일을 맡기며, 아내는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로써 순종하고 공경한다. 고용인은 종업인의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고, 때에 따라 음식을 주고 병이 나면 약을 주고 휴가를 준다"고 설하였다.

불도와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고, 또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이 된다. 고원(高原)에서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떠나서 부처도 있을 수 없고 극락도 없다. 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이고 중생이 부처이다. 번뇌가 보리이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영가 스님이 〈신심명〉에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인 무명실성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인 불성이다"라고 노래했다.

〈육방예경〉에서는 계율, 선정, 지혜의 삼학을 잘 닦고, 오계를 잘 지키면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이 찾아온다고 설하고 있다. 〈숫타니빠다〉의 행복장에도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가르침의 실천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보고,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선지식을 공경하면 행복이다"고 하였다.

법사는 〈독화살의 비유경〉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무기법을 설하거나 황당한 신통이나 기적을 설법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일상사와 평상심을 설법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일상(日常)설법을 해야 한다. 곳곳이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고, 평상심이 도이다.

법사는 여래의 사도이다. 삼업(三業)을 청정히 하고, 육근(六根)이 강건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

몸과 말과 마음, 삼밀(三密)의 실천이 부처와 동일하면, 이 몸 그대로 현성성불(現成成佛)하여 부처를 이룬다. 법사는 주변의 가까운 이웃과 함께 하여 존경받는 생활불교의 선도자인 여민(與民)법사로서 이신포교(以身布敎)를 해야 한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종법 內 '비구니 참여' 확대를

7월 23~24일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비구니 명사 추천 관련 법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대표발의자인 정운 스님(15교구)이 스스로 철회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구니 명사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법계법 개정안에 명시된 '전국비구니대표단체'를 의미하는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 개정안은 철회됐다.

철회 직후 대표발의자 정운 스님의 항변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님은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명문화됐지만 비구니 스님 관련 기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법계법 개정안은 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법계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계위원회 내에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는 명사추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계법 내 비구니 관련 조항은 전무하다. 법계위원회에는 비구니가 참여할 수 없고, 전형 방법과 기본 자격 요건에서도 모두 비구니는 비구에 준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법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도 모두 비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2013년 15대 중앙종회에서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불발 이후 7년이 지났고, 세상은 바뀌었다. 율장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승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종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외 유출 성보, 환지본처 돼야

한국전쟁 전후 혼란기에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광사 '치성광여래도'가 불교계 품으로 돌아왔다.

'치성광여래도'의 환수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다르지 않았다. 해외 경매에 등장한 '치성광여래도'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것이 그 시작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조계종에 즉각 이 사실을 알렸고 종단은 일부 훼손된 화기에도 해당 불화의 원 소장처가 송광사임을 확인, 사찰과 정보를 공유했다. 성보의 환지본처를 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송광사 측이 경매 입찰에 나섰고, 반세기 해외를 떠돌던 성보는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예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과 송광사, 국외문화재재단의 적극적이고 빠른 협업이 일궈낸 성과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2015년 환지본처한 부산 범어사 '칠성도'다. 당시 스위스 경매에 등장한 '칠성도' 3점이 국외소재문화재단의 모니터링으로 발견됐다. 송광사와 마찬가지로 원소장처였던 범어사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빛을 발했고 경매 입찰을 통해 환수에 성공했다. 2016년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던 송광사 '오불도'가 종단과 문화재청의 협력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하다. 문화재의 환지본처는 불교계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성보의 반출은 상당부분 한반도의 아픈 역사와 괘를 함께하기에, 해외를 떠도는 성보가 아직도 적지 않다. 반출 문화재야말로 우리 민족의 한 맺힌 유산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환수시스템 마련은 물론, 언제든 즉각적으로 환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시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